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설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1월)

복음화 지향: 교리 교사들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합시다.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6,22-27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 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제2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4,13-15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5-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영성체 후 묵상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일 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서로 복을 빌어 주며 시작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잊지 맙시다.

♣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늘 깨어 기다리는 자세 - 정천 사도 요한 신부 ♣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고대 사람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즐겨 입었기에, 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는 움직임을 편하게 하려고 긴 옷을 허리띠로 조절하고 동여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리에 띠를 매고 있으라 함은 즉시 움직이거나 일할 준비를 미리 갖추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불이 켜진 등불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깨어 있음을 뜻합니다. 혼인 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려면 좋은 등불을 켜 놓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늘 깨어 기다리는 자세.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선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다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천 년 동안 오지 않은 재림의 순간이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우리는 동여맨 허리띠를 풀고 긴 옷을 느슨히 늘어뜨린 채 주인이 되도록 늦게 오기를 바라는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재림 때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앞에 서서 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는 사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 다가와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림 때 맞이할 주님을 이미 일상에서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깨어 기다리는 시간은 더 이상 지루할 틈이 없는 기쁨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느라 고생한 종들을 위하여 몸소 시중을 드시는 주인의 감동적인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설 복음 필사 |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루카 12,35.37 참조)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국내 가톨릭 해외원조 역사

한국 교회 내에서 체계를 갖추고 해외원조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9년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한마음한몸 운동'이다. 한마음한몸 운동본부는 상시적인 모금, 원조 정책의 명문화, 심의 지침, 심의 결정 기구 설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한국 교회 원조 사업의 시범 사례이다.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한국 가톨릭교회의 해외원조는 1992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3년부터 주교회의 인성회가 시작한 원조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80년대 후반 한국 교회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원조 요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식별한 주교회의는 체계를 갖춘 해외원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이 업무를 주교회의 인성회에 위임하였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여러 수도회와 교구에서도 해외원조에 참여하게 되었다. [출처: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2022년 제 30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1월 마지막 주일은 한국 천주교회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과 불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만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이 여정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담화문: <https://www.cbck.or.kr/Notice/20211133?gb=K1200>

카드뉴스: <https://blog.naver.com/cbckmedia/222620574248>

후원하기: <https://mmwebhsitcokr/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RK4HtpwXXaozh/3BnbCw==>



(홍보영상 - 이미지클릭)

2022년 축성 생활의 날(2월 2일) 담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97년에 축성생활의 날을 주님 봉헌 축일에 지내도록 제정하신 이래 교회는 매년 2월 2일에 축성생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축성생활자들은 바로 그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이므로 하느님의 소유가 된 사람답게 그 어떤 중요한 일과 사명보다 앞서 먼저 잘 존재(웰빙 Well-Being)해야 합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존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축성생활자들은 영원히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착한 목자이신 주교님들께 강복을 청하며 오늘 우리 축성생활자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잘 존재(영적, 신앙적 웰빙)하기를 다짐합니다.

2022년 2월 2일 축성생활의 날에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

담화문: <https://cbck.or.kr/Notice/20220015?gb=K1200>

주교회의, 악마 묵주·가짜 기적의 메달 주의 당부

가짜 성물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외국에서 발견된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 모조품에 대해 신자들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모조품을 조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인준한 성물의 형상을 바르게 알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축성 생활의 날을 맞이하며 교우분들께서도 변형되거나 왜곡된 성물에 대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64087¶ms=page%3D1%26acid%3Dm

[대전교구 공지 - 변형된 성물과 잘못된 신심에 대한 주의]

<https://www.djatholic.or.kr/home/news/news.php?enter=v&page=1&idx=58861>

성당이나 교회 기관의 성물보급소에서 성물을 구매해 주세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오픈 마켓 구입 X)



묵주

거짓 묵주

거짓 묵주2

기적의 메달

거짓 기적의 메달

| 연중 제 4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30

착한 온도로 건강하게 "겨울 19도, 여름 28도"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7

일주일 1회, 대중교통 이용(승용차 요일제)

→ 39.12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https://anu.zoom.us/j/5860472074?pwd=L1JMeGxUTutsdVROMXp1WURONDFVZz0>)

주일미사 의무 관면 (온라인 미사)

크리스토퍼 대주교님은 2020 년 3 월부터 팬데믹 기간동안 주일미사 의무에 대한 관면을 허락하셨습니다. 미사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미사 중계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Catholic Voice

<https://www.catholicvoice.org.au/mass-online/>

Mass for you at Home

<https://massforyou.com.au/>

Mass on Demand

<https://www.youtube.com/user/cath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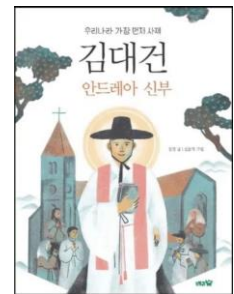
평화방송 매일미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BoZynea6G3hlgMA1NEQ-zw>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문익 : 각 소공동체장

주일 미사 참여자수

1 월 16 일	성인 28 아이 9	1 월 23 일	성인 43 아이 14
----------	------------	----------	-------------

우리들의 정성 (1 월 22 일(토)~28 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정수	김천주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주진호		

교무금 : \$640 (14가정) / 봉헌금 : \$330 / 감사헌금 : \$200 (안경록 도미니코)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 (1 월 30 일, 설) 허준 안토니오, 김우경 가브리엘라

(2 월 6 일, 연중 제 5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30 일) 사목회 → (2 월 6 일) 마태오회 → (13 일) 루카회

대교구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2021 년 12 월 22 일(수)부터 유효)

- ① 실내에서 1 명당 2 제곱미터(sqm) 공간 확보(직계가족, 유아 제외) ②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12 세 미만 제외)
- ③ 성당 입구에 비치된 Check In CBR 앱으로 방문자 등록 ④ 성당 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

ACT Health COVID-19 웹사이트 : <https://www.covid19.act.gov.au/>

♡ 이루비 캐서린(2 월 2 일) 학생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